

〈교양학 연구〉 기획코너 투고 안내

교양교육 전문학술지인 〈교양학 연구〉(등재지)에서는 일반논문 코너에 더하여, 두 개의 기획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교양학을 위한 고전 읽기〉

기획 의도: 고전 새롭게 읽기, 또는 새로운 고전의 발굴로 교양교육의 콘텐츠 확장

〈교양학을 위한 고전 읽기〉는 기존의 고전을 재해석, 재평가하거나 새로운 고전을 탐색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전의 의미와 주제를 되새겨 보기 위해 마련된 기획입니다.

【고전 새롭게 읽기】 “고전을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새롭게 읽을 수 있을까?”

무위자연의 재조명과 고전 교육에서의 함의 || 조은정(14집)

『대동여지도』로 읽는 19세기 조선 || 이대화·한미라(15집)

대학 고전독서 관련 교양교육에서 한국 고전의 수용 방향과 가능성

: 김시습, 『금오신화』 중 「이생규장전」 독서 지도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 홍인숙(17집)

사도세자와 영조를 바라보는 후대의 시선: 『한중록』의 해석에 개입된 역사관 들여다보기 || 이대화·한미라(20집)

【새로운 고전 읽기】 “오늘 여기에서 필요한 새로운 고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피터 드러커의 경영철학과 교양교육: 『경영의 실제』를 중심으로 || 한형성(16집)

김현 문학의 본질, 문학주의자의 문학론: 김현의 평론집 『한국문학의 위상』(1977)론 || 최강민(17집)

민중성 발견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의 힘: 이문구의 『관촌수필』 || 오창은(18집)

인문, 사회, 자연, 예술, 환경, 공학,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려는 연구를 기다립니다.

이 기획을 통해 고전의 새로운 서가를 구성해나가고 교양학의 콘텐츠 확장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2. 〈교양교육 연구 리뷰〉

기획 의도: 교양교육에 관련된 연구 동향 분석, 교양학 연구와 교수학습 방향 설정

〈교양교육 연구 리뷰〉는 “교양교육의 영역별 연구 현황은 어떠한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교양학의 새로운 담론을 구성할 수 있을까?” 를 탐구하기 위한 장입니다.

【교양교육 연구 리뷰】

대학 안 글쓰기와 대학 밖 글쓰기 || 류찬열(14집)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연구의 동향 분석 || 주월량·강병헌(15집)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연구의 현황과 진단 || 최윤경·한수영(16집)

한국에서 ‘교양으로서의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와 통합과학 저서 돌아보기 || 조현모·장수철(17집)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교양회계 및 회계교육 연구동향 || 육지훈·이재열(19집)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초 소양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컴퓨팅 사고와 AI 리터러시 || 이민정·이기성·전주현·김영민(20집)

이 기획을 통해 교양교육 관련한 연구 동향을 분석해보고 교양교육의 역할과 의미, 교수법 등을 아우르는 교양학 담론을 구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투고: <https://davincimirae.jams.or.kr/>

문의: davincimirae@gmail.com